



HAL
open science

Wŏnmun pip'yŏng-ŭi pangbŏmnon-e kwanhan sogo (
= On Methodolgy in textual criticism)

Daniel Bouchez

► **To cite this version:**

Daniel Bouchez. Wŏnmun pip'yŏng-ŭi pangbŏmnon-e kwanhan sogo (= On Methodolgy in textual criticism). *Tongbang hakchi*, 1997, N° 95, pp. 143-172. halshs-00443571

HAL Id: halshs-00443571

<https://shs.hal.science/halshs-00443571>

Submitted on 30 Dec 2009

HAL is a multi-disciplinary open access archive for the deposit and dissemination of scientific research documents, whether they are published or not. The documents may come from teaching and research institutions in France or abroad, or from public or private research centers.

L'archive ouverte pluridisciplinaire **HAL**, est destinée au dépôt et à la diffusion de documents scientifiques de niveau recherche, publiés ou non, émanant des établissements d'enseignement et de recherche français ou étrangers, des laboratoires publics ou privés.

東方學志 (*Tongbang hakchi*), N° 95 (1997-3), pp. 143-172.

KEYWORDS: 남정기, 구운몽, 원문비평

원문 비평의 방법론에 관한 小考.

-김만중 소설 중심으로 -

D. 부세¹

문학평가는 형식과 내용을 분리할 수 없다. 시는 물론이지만 산문 문학도 마찬가지이다. 소설을 올바르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내용에 해당하는 줄거리의 재미와 짜임새뿐만 아니라 언어의 잠재성을 활용하는 문체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국문으로 현존하는 한국의 고대 소설의 경우 많은 작품은 한문본도 전하고 있기에 국문 한문간에 창작의 언어를 판가름할 수 없고, 따라서 문체의 평가도 불가능한 실정이다.

金萬重의 <남정기>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北軒 金春澤이 저자명과 아울러 원어를 밝혀 두는 자료가 있어 국문이 원문이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런데 문체가 우수하다고 동시대인의 호평을 받은 유일한 소설도 역시 님장기 인 것은 주의를 받지 않고 있는 것 같다. 김춘택은 자못 늘이고 빼며 가다듬고 고치기도 (頗增刪而釐之) 했다고 쓴² 다음 부치기를 <그러나 (西浦) 선생의 독특한 선질 심정 사상의 묘함이 있는 이 책은 이로 인하여 언문에서까지도 우아함이 보였다. 오히려 저의 번역이 이에 미치지 못 한 것이 있다.> (先生 特以

¹ Daniel BOUCHEZ, 프랑스 C.N.R.S. 명예교수, 현재 프랑스 國立極東研究院 (E.F.E.O.) 駐韓 代表

² 北軒集, 권 16, 줄고, <북헌집의 남정기설>, 동방학지, 43 (1984=9), 143=175.

其性情思致之妙 而有是書. 故於諺之中 猶見詞采, 今愚所翻 反有不及焉者.) 라고도 부기했다. 저자가 그의 종조부이기에 이런 절찬은 일가의 단결심에 의 한 것으로 해석될지도 모르겠으나 각각 서로 다른 이본들 가운데 원본을 골라내어 심만중의 자작 원문을 읽기 전에는 스 적부를 판단할 수 없겠다. 필자는 이십년전에 이런 목적으로 <남정기>의 이본 조사에 착수했으며 채을 불어로 낸 바가 있다.³ 나중에 누적된 경험을 활용하여 <구운몽>의 문원 문제를 다룬 일도 있는데 이는 한국어로도 발표되었다.⁴ 본고에서는 필자가 원문 비평을 실행해온 과정과 성결과 상기시켜드리면서 그 방법론에 관해서 경험담식으로 몇가지 소견을 제의하고자 할뿐이다.

그러나 <남정기>는 조선 시대에 인기가 있어 사본들이 많고 국내외에 널리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이본 조사가 처음부터 어려워 보였다. 특히 국문본들은 국어가 원어라고 하여 모두 원본 직계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은 물론이었다. 그 중에 한문에서부터 反譯이 된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 그 반역본과 직계본을 구별하는 기준이 필요했다. 경화당 문고에 보관되어 있는 한문본을 1976년에 살펴 보게 되었는데 거기서 翻諺南征記라는 제목 밑에 한역자인 김춘택의 서문이 실려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복헌의 문집 권 16에 “而其引辭曰”이라 시작하여 쓴 글과 같았다. 뿐만 아니라 이 서문 끝에 附凡例라는 표제하에 국문 소설을 번역하면서 增刪 改修한

³ 출서, *Tradition, traduction et interprétation d'un roman coréen, le Namjong ki*, Collège de France, Centre d'études coréennes, Paris, 1984, 237 p. 서평, 국어국학문 94, 1985-12, 301-313.

⁴ 줄고, 九雲夢著作言語辯證, 한국학보, 제 68집, 1992, 가을, 1992, 31=61.

사항을 부록으로 밝혀 둔 글도 있었다. 같은 해에 丁奎福교수가 다른 한문본에서 같은 발견을 하게 되어 1977년에 발표한 바도 있다.⁵ 국문본 가운데 귀중한 원문 직계본을 반역본들의 무리에서부터 가려낼수 있는 기준을 요행히 찾았던 것이다. 다른 많은 정보를 남겨 주었었고 이것까지도 제공해준 역사 인물에 대해 탄복을 했다.

김춘택이 개변했다고 개별적으로 명시해준 그 범례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유한림이 회사정에서부터 황혼을 내려다보고 있을 적에 나오는 두 귀절을 삭제했다는 것.
- 2) 사씨가 백빈주에 대한 시부모의 지시를 망각했다는 이야기도 없었다는 것.
- 3) 관음보살이 묘희에게 꿈으로 나타났다는 이야기를 추가했다는 것.
- 4) 원문에 본래 있던 관음에게 비친 찬사와 黜妻에 대한 告廟文 두편의 삽입문이외에 여러가지 문서들을 창작해서 부록에 모아 놓았다는 것.

위의 4) 번은 학문과 국문본이 공존하는 작품에 대한 유익한 근거를 준다 하겠다. 누구나 알다시피 당시의 역자들은 본문에 대한 정정을 꺼리지 않았다. 그런데 국문 소설을 한역하는 경우 다른 어느 부분보다도 자유스러움을 느꼈던 데는 삽입문이라는 점이 원문비평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이 아닐 수 없다. 당시 국문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疏, 告廟, 祭등과 같은 형식적 산문 문서는 국문 소설에 생략되어 있다. 누가 짓고 올렸다는 말만 나오는 것이 보통이다. 韓詩도 마찬가지로 번역되거나 音譯되거나 국문으로 옮김 것도 있는가 하면 생략되는

⁵ 翻諺南征記, 연민 이가원 박사 육질 송수 기념 논총, 서울, 1977, 17-85.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문으로 지어진 작품의 원문 직계본과 반역계본을 분간하는데 삽입문의 유무는 반드시 조사 대상이 되어야 한다. 한편 예외의 가능성 또는 후대의 필사자가 반역본의 삽입문을 따서 직계본문에다 끼워 넣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 다른 증거와 종합적으로 신중히 다루어야 할 기준이지만 직계본에는 삽입 시문이 적은 것이 관례라 해도 좋다.

범례에서 명시된 사항들을 기준으로 삼아 주요 도서관 소장 및 金東旭 정규복 양교수 개인 소장본들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본들을 반역이 아닌 직계본으로 가려내게 되었다.

- 1) Bibliothèque de l'Ecole des langues orientales, Paris, 2권판, 및 3권판, 목판본, 由洞, 辛亥년 (1851).⁶ Maurice COURANT, *Bibliographie coréenne*, Paris, 1894-1901, 4 vol., vol. 1, p. 391, n° 773, vol. 4, p.17, n° 3348. 영인 고소설 목판본 전집, 5권, 권4, pp. 273-306. 이 사본을 A본이라고 여기서 부르기로 한다.
- 2) 장서각 소장 필사본. 4-6789번, 3 권, 연대 미상, 약칭 : B본.
- 3)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필사본, 한-48-249, 4권, 연대 미상, 약칭 : C본.
- 4) 정규복교수 소장, 필사본, 2권 합본, 1910년, 약칭 : D본.
- 5) 정규복교수 소장, 필사본, 2권, 癸未년, 약칭 : E본.
- 6)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필사본, 일사 813-53/G 422-S/v. 1 v.2, 2 권,

⁶ 李金禧교수는 줄서를 비판하면서 이 목판본을 1911년의 것으로 잘못 보고 있다. 이교수는 1894년에 출판된 쿠랑의 <한국서지> 제1 권에 기입된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이금희, <사씨남정기연구>, 반도, 서울, 1991년, 244 p., p. 152.

연대 미상, 약칭 : G본.

7)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만송문고 C14-123 A, 권 2뿐 癸亥년,
약칭 :

J본.

8) 사씨남정기. 世昌書館, 서울, 1957, 77 쪽, 약칭 : K본.

9) 김만중 작품 선집, 조선 고전 문학 전집 15호, 평양, 1958, 394 p,
윤세평 주석, 27-142.

10) 구운몽 사씨남정기, 朴晟義 주석, 정음사, 서울, 1959, 269 pp.
89-257.

합격한 마지막 현대판 두 편은 동일한 자료를 복사한 것 같다. 박성익은 이를 中央印書館版이라 한다. 이 두 편은 원문비평 작업에서 무시하기로 했다. 그 편자들은 표현을 현대식으로 수정해 놓아서 異字 표에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비교 검토를 하고 보니 결과는 미흡했다. 남은 수가 적을 뿐더러 기타 여러가지 변이가 된 사본들이었다. 김춘택이 첨가했다는 묘희의 꿈이 위의 모든 사본에 과연 빠져 있지만, 사씨가 백빈주에 대한 시부모의 지시를 잊어버렸다는 원문의 이야기도 어디에도 나오지 않고 있다. 그리고 한역자가 일부러 빠뜨렸다는 회사정의 두 시적인 귀절은 ACD본에서도 생략되었다. 뿐만 아니라 가필했다는 삼입문 하나가 C본에 나타나고, EG본은 한문 본들과 같이 章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CEG 국문

본들은 한문 전통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은 것이 분명하다. 그래도 범례의 다른 기준에 들어 맞기 때문에 원문 직계의 사본으로 추정이 되어 제거하지 않기로 했다. 지금에 와서 이본 수집에 다시 진행 하게 되면 결과는 어떨지 모르겠으나 이십년전에는 많은 애로를 타개하면서 사본을 모아 보았지만 수십 편중에 대상이 될 만한 것이 이 여덟 편밖에 없었다.

그 중 선후 관계를 밝히기 위해 계통도를 작성할 방법이 필요했다.⁷ 택한 것은 중세 라틴어 자료 전문가인 프로제라는 사람의 고안이다. 그는 <문헌비평과 그 자동화> 라는 책에서⁸ 독일의 G. 그뢰버 프랑스의 G. 파리스의 방법론을 비판했다. 즉 그들이 비평과정의 첫 단계부터 오류라는 개념을 사용한 것은 잘못이라 한다. 첫 단계에서 어떤 異字 異文(variante)들을 가르켜 착오(faute)라고 부르는 것은 억측이나 주관적 선입견에 의한 것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작업의 초기에는 시비를 따지는 일은 시기상조이다. 그 때에는 오자란 말 대신에 차이의 뜻밖에 없고 잘못의 뜻이 없는 異字나 異文과 같은 용어만이 적당하다. 원본을 식별할 수 없는 이 단계에서부터도 차이라고 말할 수 있게끔 먼저 이본 가운데 아무것이나 하나를 專斷적으로 골라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 이 첫 단계에서 다른 사본들이 그것과 맺는 관계를 탐지해 볼 뿐이다. 이본들간의 실제 선후 관계를 임시로 보류해두고 있다. 여기서는

⁷ 이금희교수는 앞에서 인용한 책에서 반역본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다 많은 국문 이본을 늘어놓고 있다. 필자가 전개 줄서에서 반역본을 제거한 것은 무엇보다도 원문의 재구를 가능케 하기 위해 직계본들과 그 계통을 알아내는 데에 유일한 목적을 두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교수는 필자가 발견하지 못했던 중요한 직계본들도 찾아낸 것 같다.

⁸ Jacques FROGER, *La critique des texts et son automatisaton*, Dunod, Paris, 1968, 280 p.

선후 순서를 말해도가칭한 뿐이고 실제로는 연결 관계만을, 달리 말하면 脈絡만을 모색해 보는 것이다. 난제를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누어야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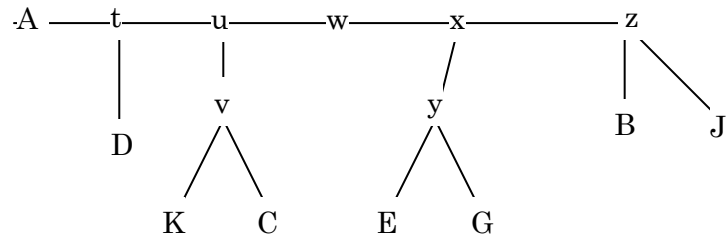
그리고 異字나 異文들도 여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 사본이 한 자리에 상이하게 변한 이른바 복합 異字 異文 (variante multiple)들도 받아들여 다른 것과 함께 다루면 반드시 혼란을 일으킨다. 왜냐하면 여러가지 원인에서 유래할 수 있는 異字 異文은 필사자가 선행자의 개편을 고친데서 왔는지, 상호 관계 없이 여러 사람에 의해 평행적으로 생긴데서 왔는지등 발생한 현상의 성질을 알 길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단일한 연쇄로 이어지는 이본들의 계통을 드러낼 수 없게 해버리고 만다. 이러 폐단을 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복합 異字 異文을 무시해 버리는 것이다. 오직 기준 사본에 비해서 같은 글자 또는 같은 귀절에 다른 모든 사본에 변이가 하나밖에 없는 소위 단순 異字 異文 (variante simple)만을 들추어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프로제는 이런 방법으로 원문 비평하는 데에는 해당 작품의 전편을 조사할 필요는 없다고 말하고 있다. 다음 단계에 각 異字 異文의 비중을 파악할 수 있도록 그것이 발생하는 빈도를 채볼 수 있을 만큼의 길이만 있으면 된다고 한다. 위에서 인용한 책에서 필자는 유한림이 길에서 집의 여종을 우연히 만나 이야기를 듣고 교씨의 악독함을 그제야 깨달아 사씨의 행방을 찾기 시작하는 장면부터, 구체되어 묘희의 배를 타고 부인과 상봉하는 데까지의 부분을 택했다. 그리고 專斷的 기준으로 A본을, 1851년의 목판본을 골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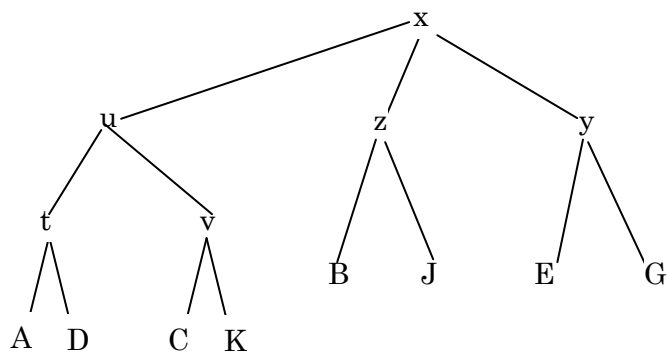
단순 변이를 모두 적어두는 긴 작업을 해 놓은 다음 기준에 대해 한 자리에서 같은 차이를 가진 이본들을 고려하게 된다. 그들은 동일한 異字 異文을 갖는데 일치하여 그 곳에 뭉치게 되어 그룹(*groupe de variants*)을 이룩한다고 한다. 기준본을 제외하면 일곱 편을 다루는 본 검사에 있어서는 일곱 편이 모두 해당되는 뭉치(BCDEGJK)도 있는가 하면 여섯 편, 다섯 편등등이 구성하는 뭉치도 있고 독특하게 변한 이본까지 있다. 다음 같은 異字 異文을 가진 이본의 이런 뭉치들은 遞減 級數 순으로 한 층씩 분류한다. 이러면 일곱 편 의 윗줄에 모여있는 이본들은 적은 급수의 아랫줄에 내려감에 따라 하나씩 사라지게 된다. 방법의 원칙은 어느 한 층에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해당자는 급수가 얇은 하등 뭉치에 들어 있는 타자에 대해 선행자가 된다는 것이다. 프로제는 이러 방법(*group method*)에 대한 수학적 이론을 책에서 상술하고 있다. 그런데 본 연구의 해당 이본들에 이 방법을 적용해 보니 그 중 하나가 어느 층에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것은 전혀 없고 일곱 편이 다 등급마다 있고 맨 밑의 줄에도 즉 독특하게 변한 사본 가운데 검사한 다른 한 편에 대한 선행자가 되는 사본은 하나도 없겠으며 각자가 계통도에 있어서 각각 분파의 말단에 있겠다는 뜻이었다.

기대에 어긋나는 결과이었다. 하여튼 계보를 짓는 다음 단계로 넘어 가기 전에 먼저 청소 작업이 필요했다. 왜냐 하면 해당자 수에 따라 체감 급수로 분류된 이본 뭉치들은 각 급수층에 하나밖에 없어야 한다. 여럿이 있는 경우에는 하나만 남게끔 무시해도 무방할 것이

없는가 점검을 해 봐야 하는 것이다. 뭉치들은 각각 발생한 변수에 따라 비중이 다르다. 본문에서 몇 번밖에 안 이루어지는 것들은 자주 나타나는 그룹에 비해 비중이 적다. 예를 들어 본 검사에 있어서 한 뭉치에 여섯 편이 있는 급수층에는 그룹 둘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하나는 BCEGJK인데 36번 생겼고, BCDEGK인 다른 하나는 한번밖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둘째를 우연의 소산으로 추정해 제거해 버렸다. 이런 손질들은 한 끝에 각 급수에 칠층에서부터 이층까지 남은 뭉치들이 있다. 본 연구에서 검사한 이본들은 각각 말단에까지 있기 때문에 중간층의 뭉치들을 과거에 묻힌 미상의 선행자로 보았다. 그들은 각각 小字 약칭으로 이름하여 아래와 같은 계보를 그릴 수 있게 되었다.



이 계통도는 검사한 이본들의 상호 관계밖에 안 가르키는 것이다. 그 방향이 정해지지 않고 있어 실제 선후 관계는 아직 보여주지 않고 있다. 계통도 전체의 방향을 밝히기 위해 비평 과정에서 보류해 두었던 오류라는 관념을 이제야 도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소자 대자 약칭들을 잇고 있는 線分의 방향을 하나씩 구명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 각 선분 양끝의 그룹을 형성하는 변이들 가운데 확실한 오자를 알아내야 한다. 결국에 오자로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있는 쪽은 아래 쪽이 되고 실제 후행자가 된다는 원칙이다. 선분마다 오자를 하나만이라도 발견해야 모든 선분을 각각 방향이 있는 벡터로 보아 계통도를 완성한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전단적 기준인 A본에서부터 출발하여 오자를 들추어보았다. 결과는 위에서 인용한 책에서 발표한 다음과 같은 계통도에 이르렀다. 선분마다 오자를 하나만이라도 발견해야 모든 선분을 방향이 있는 벡터로 보고 계통도를 완성한 것이다.



미상의 원문을 의미하는 <x>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계통도는 무용한 것으로 여겨질지 몰라도 필자는 원문을 복구하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다. 왜냐하면 후행자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내용은 그들의 선행자에게 유래한 것으로 단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ADCK 사본들에게 기재된 낱말들이나 귀절들은 다 <u>라는 미상의 중개본에 있었듯이 <u> <z> <y> 중개본의 후행자들이 공유하는 것 특히 여러 한문본들과 부합하는 모든 내용과 표현은 <x>라는 원문에서 유래된 것으로 판정해도 좋을 것이다. 필자는 이 작업을 이 정도로 하고 국내에서 누군가가 보다 많은 이본을 모아놓아 일을 계속해 나가기를 바라 마지 않는다. 본고에서는 다만 이 계보에 대해 몇가지 주석 사항을 달아보고자 한다.

계통도를 일견해 눈에 띄는 것은 세 갈래로 갈라져 있고, 각 갈래는 <x>를 기원으로 하는 구조이다. 물론 <x>라는 부호는 베껴지고 베껴져서 여러 사본을 포함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여부를 알 도리가 없다. 또 아래 여러 중간 선분들에 숨은 중개본들이 있을 것같아 선들을 점선으로 그을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서로 판이한 국문 직계 현존본들은 모두 단일한 원천에서 내려오면서 계보에 드러나는 첫 단계로부터 세 분파로 갈라지는 구조는 <남정기>가 일찍부터 복사되어 널리 보급되고 초기에 원문계 국문에 인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반면 필자가 국내외 주요 도서관들을 찾아서 수십권을 샅샅이 훑어도 국문 직계본을 이 여덟 편밖에 구하지 못 한 사실은 국문의 전래 과정이 좋지 못 했음을 명백히 해준다.⁹ 초기에는 잘 읽혀지고 베껴졌던 원문계 텍스트는 일단 한역이 된 이래 남자 양반 사회에서 가치가 있고 보존이 비교적 잘 되던 한문본들, 또 거기서부터 반역된 국문본들에 눌러버린 모양이다. 한역의 복수성을 본고에서 후술하겠지만 <남정기>는 한문으로 번역된 것보다도 한문에서 국문으로 도로 번역이 된 일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⁹ 위의 주7에 참고. 이교수도 국문본의 수가 비교적 적다고 한다. (전게서, p.11).

무용하게 보이는 이런 계통도에 참고해도 또한 본문의 전승 과정과 또 전해진 환경에 관한 몇가지 사항을 알아차릴 수 있음을 예증하기 위해, 줄서에서 각 분파의 특징을 예로 든 바도 있다. 작중 인물들의 감정은 다 천성에 뿌리를 박은 것(皆根於天 具於性)이라고 칭찬한 김춘택까지도 사부인이 시부모의 지시를 잊었다는 순진한 고백과 정체를 모르는 사람을 구하러 밤에 나갔다는 작가의 말들을 정정했듯이, 망각의 자백은 J본에만 있어 <u>랑 <y>랑 B본의 필사자들이 김춘택과 같이 판단해 그 말을 빠뜨린 것을 알 수 있다. <u>의 ADCK분파에서 <u>필사자가 주석을 여기저기 가필한 내용은 이 소설을 도덕적 교훈으로 읽던 흔적이다. 그리고 거기서 교씨의 아기를 암살하기로 결정한 사람을 그 어머니 대신 남자인 동청으로 하며, 또 사씨가 중심 인물이 되게 작품의 말미를 개작한 것등은 여자 손을 드러낸다 하겠다. 게다가 같은 분파의 AD본의 <t>필사자가 부인이 새로 들어온 첩에게 해준 긴 훈시와 아울러 간음을 하다가 들킬 뻔하던 첩의 공포심을 표현하는 말등을 가필한 것도 그 분파 사본들이 규방에서 전래되어 온 징표로 해석할 수 있다. 중국 역사나 문학에 어두운 사람에 의한 여러 오사들도 같은 결론을 이끌어낸다. 그리고 그 분파에서 사씨를 屈原에게 비기는 어구들이 많이 누락되어 당시 규방 독자층에서 인현왕후 폐비 사건과의 유사성을 계속 의식하고 있었더라도 저자 자신에 대한 작품의 다른 寓意的인 뜻에는¹⁰ 관심을 잃었거나 그것을 파악치 못 하고 있었음을 나타낸다.

이와 반대로 B본의 특수한 異字 異文들은 세련된 환경의 영향을 드러낸다. 예를 들어 부인이 자살을 한 것으로 아는 유한림이 통곡하는

¹⁰ 줄고, 남정기에 대한 일고찰, 아세아연구, 제57호, 1977, pp. 189-211.

말 가운데 “비록 백볼을 물너한들 엇지 밋치리오” 라는 어구가 “아무리 뉘웃즌들” 이라는 말로 바뀌었다. 한림이 등 밑에서 붓을 들어 부인에 대한 제문을 지으려고 할 때 B본은 EG본들과 같이 옆에서 자는 종자의 코고는 소리가 “우레갓흐다”는 한역자도 생략한 좀 비속한 말을 간직하고 있는데, 그들과는 달리 “그 소리에 더욱 심난하야 제문 한줄 이루지 못한다”는 거기에 대한 주석도 담고 있다.

그리고 B본에서 중국 고사를 빗대는 한 구절이 없어진 것도 주목할 만하다. 첩 교씨가 둘째 아들을 낳을 적에 다른 사본들은 본래 呂氏 아닌가 의심이 났다 하던 秦始皇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다. 그 황제가 呂不韋의 사생아라는 소문이 있었다는 유명한 이야기이다. 갓난 아기를 진시황에게 비기는 것은 아이는 유한린의 아들이 아니라 교씨 애인 동청의 자식임을 암시하는 뜻 밖에 있을 수 없다. 그런데 동청이라는 <남정기>의 작중 인물은 창작 당시 조정에 살고 있던 실제 인물에 상응함은 필자가 입증한 바가 있다.¹¹ 즉 장희빈 처소에 자주 드나들어 西人들의 지탄을 받고 있던 東平君의 모습이다. 교씨의 아들은 둘째이지만 그 아이가 동평의 자식임을 시사하는 말은 장희빈의 아들에 대한 비슷한 의심을 일으키는 것이었다. B본만을 제외한 국문 한문본을 막론하고 사본마다 있는 이 비유는 원작에서 유래한 것이 확실하다. <남정기> 창작의 연대를 정확히 알 수 없어서 저자가 이것을 썼을 때 장희빈 아들이 이미 태어났는지 또 이미 元子가 되었었는지 알 수는 없다. 그렇지만 그 이가 1720년에 즉위한 이래 그 비유는 임금에 대한 모독이요 불경죄에 해당하는 말이 되어 버렸었다.

¹¹ 졸고, 1977, pp. 203-204.

B본에서는 기타 이본에서 보이지 않는 <계달(啓達)하다>는¹² 표현과 같은 궁전 용어가 발견된다. 이 사본은 양질의 종이에다 궁체로 쓰인 능서이며 낙선재 및 장서각에서 고이 보관되어 온 책이다. 왕실의 것임에 틀림없다. 거기서 장희빈의 독자인 景宗 자신이 불의의 자식이 아니라도 후에 간통한 어미의 아들임을 시사하는 비유를 읽을 때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작품을 필사한 궁녀가 이 말을 뺀 것이 이해된다.

이밖에도 계통도가 B본에 대해 밝히지 못 하고 있는 보다 중요한 사실을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계통도만을 보게 되면 각각 제 가지 말단에 있는 이본들은 다 같은 세대에 속하고 동등한 품질의 것이라는 인상을 받게 된다. 그러나 실체는 그렇지 않고 질의 면으로는 상호 차이가 크다. 예를 들어 장서각의 B본을 읽고 나서 A본을 훑어어보면 후자는 전자의 무미건조한 요약서와 같다. 길이가 B본의 약 70%밖에 안 되어 훨씬 짧고 빠진 구절이 많다. 앞의 말이 생략되어 뒤의 장면을 이해할 수 없는 경우도 더러 있고 새로 등장하는 인물이 소개되지 않아 누군지 알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인물들간의 회화는 어색하기만 하며 중국 고사에 대한 비유는 왜곡이 심해 무의미해진 것이 한둘이 아니다.

필자가 살핀 국문 직계본 가운데 문체에 대한 호평을 받아 마땅한 것은 B본밖에 없다. 다른 이본들에 비해 말이 부드럽고 줄거리가 유연하게 잘 이어져 간다. 청결하고 우아한 글이다. 원문에 돌릴 수 없는 소수의 특수 異文들이 들어 있기는 하나 김춘택이 칭찬한 원작에 제일 가까운 현존본은 이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금할 수 없다.¹³ 또한 이것이

¹² 전계 사본, 권3, 장20 앞.

¹³ 이금희 교수는 필자가 장서각본을 “국문 원문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전계서에서 여러 차례로 (특히 pp. 126-127) 썼다. 이 것은 줄서의 요지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착각이다. 佛文을 잘 읽지 못 해도 남의 도움을 받아 판독한 것을 또

왕궁에서 보존되어 온 사실을 볼 때 이 작품을 궁녀들 사이에 보급하라고 지시를 받았다는 김춘택에 대한 구전의 이야기가 연상되어 흥미롭기도 하다. 하여튼 살펴본 직계본 중 장서각 <남정기>의 우수함이 너무나 분명해서 필자가 사방에 흩어진 사본을 찾아 살피고 직계본들을 가리고 異字 異文들을 하나씩 적어두고 그룹식 분류 방법을 이용하여 계보를 그리기에 힘을 써온 것이 헛수고로 여겨질지도 모르겠다. 필자도 이런 생각이 든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돌이켜 볼 때는 그렇지 않다고 간주한다. 앞으로 한국 문학의 명작인 <남정기>를 일반인에게 소개하여 올바른 인식을 시키기 위해 달리 말하여 재미나는 이야기, 미덕이 있는 여성의 일대기, 또 당시 군주의 행실을 규탄하는 풍간 소설이라는 것 이외에도 국어의 잠재성을 훌륭하게 활용한 최초의 산문 작품중의 하나로 인식시키기 위해 장서각본과 같은 선본을 읽혀야 하겠다. 이 점에 대하여 국내에서 아직도 사본을 가리지 않고 직계나 반역을 불문하고 닥치는 대로 아무것이나 출판하여 보급시키고 있는 현황은 유감스럽게 여겨진다. 앞으로 출판계에서는 원문 직계의 최선본을 이용함이 대단히 바람직하다. 한편 학계에서는 장서각본을 믿어버려 원작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물론이다.¹⁴ 필자가 준비 작업밖에 못 한 원문 비평에 언젠가는 다시 착수해야 하겠다. 이 필수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는 B본의 특수 異文을 제거하고 正文을 가려내기 위해 필자가 본고에서 소개한 체감 급수로의 뭉치라는 방법이 아니라도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세워진 계통도가 필요할

계통도에 참고해 쉽게 알 수 있을 것을 이와 같이 오해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B본과 <x>간에 소자로 쓴 <z>가 있고 또 그것들을 잇는 각 선분은 중개본이 그 속에 숨어 있을지 모른다는 뜻으로 점선으로 그어져 있다. 그리고 본고에서 거듭 말한 바와 같이 계통도의 <x>란 것은 원본이외에 여러 사본을 포함하는 가능성도 있다.

¹⁴ 위의 13주 참고.

것이다. 그 때 프랑스말 줄서와 본고가 참고되기를 바랄 뿐이다.¹⁵

김춘택이 남긴 자료가 있어 창작 원어가 확실하고, 또 그의 한역서에 범례까지 부록으로 있어서 원문 비평 작업이 비교적 쉽게 보이는 <남정기> 아니었더라면, 필자는 프로제의 방법을 익혀서 이런 일에 손을 대지 않았을지 모른다. <남정기> 에 관해 본고에서 거둔 성과가 어떻게 평가되든지간에 한국 문학에 있어서 이본들이 여럿이 있고 원문이 불명한 많은 작품에 대해 이와 같은 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된다. 프로제의 고안은 전산화된 정보처리의 시대 이전의 것이라 지금은 본문들을 컴퓨터에 입력해놓기만 하면 이런 그룹 방법에 의해 異字 異文들을 빨리 분류하고 여과질을 해버리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어 일이 쉬워지게 되었다.

1976년에 발견된 김춘택의 범례는 국문본들 뿐만 아니라 <남정기> 한문본들을 감별하기에도 적용할만한 고마운 기준을 제공한 것이다. 적용 결과로 <남정기>의 한역서는 김춘택의 그 한가지 뿐만 아니라 그 밖에 다른 두가지가 있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다. 이것은 필자가 이미 한국어로 발표한 바가 있어¹⁶ 국내에서 알려진 일이니 여기서 다시 상술할 필요가 없다. 다만 그 한국어 논문에서는 생략되었고 나중에 프랑스말 줄서에만¹⁷ 기재된 세 갈래 부류의 목록을 아래와 같이

¹⁵ 필자는 <남정기>의 원문 부활의 가능성을 낙관하고 있다. 반역본들을 배제하고 이금희 교수와 필자가 발견한 직계본들을 모아놓고 異字 일람표를 작성한 다음 체감급수순으로의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계통도를 먼저 수립해야 할 것이다. 여러 한문본들에도 참고해가면서 국문의 모든 분파에 있는 표현과 내용은 원문에 속한다 단정할 수 있게 되어 원문을 재구할 수 있을 것같이 보인다.

¹⁶ 줄고, 남정기 한문본고, 백영 정병욱선생 환갑 기념 논총, 친구문화사, 서울, 1982, 1020 p., pp. 660-673. 재판 : 한국 고전 문학 연구, 상동, 1983, 439 p., pp. 54-67

¹⁷ 전계 줄서, 1984, pp. 17-25.

간단하게 소개한 다음, 방법론에 대한 부언을 하고자 한다. 범례의 기준에 따라 <남정기>의 한문본들은 다음과 같이 갑을병류로 분포된다.

甲類

갑류의 본문은 김춘택의 번역문이다.

- 1) 정규복교수 소장본, 51 장, 翻諺南征記라는 서문도 있고 附凡例라는 부록도 있다. 서문의 年記는 己丑년(1709)이다. 범례에서는 가필한 시문을 책끝에 모아 놓았다 하지만 이 사본에서는 모두 본문에 삽입되어 있다.
- 2)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景知堂 문고, C14, A18A, 73 장, 癸巳년, 서문과 범례는 위와 같다. <경화당 문고 목록>, 1975, 138 p., p. 56.
- 3)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일사 가람 문고, 고 813-53/G-422-n, 연대미상, 77장. <일사 가람 문고 고서저자 목록>, 1966, 344 p., p. 34.
- 4) 국립 중앙 도서관, 한-48-163, 연대미상. <국립 중앙도서관 고서 목록>, 1970부터, 권 1, p. 511.
- 5)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811-36/김만중/사필, 연대미상, 2권.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1977, 797 p., p. 150.
- 6) 위와 같음 , 1권, 77장
- 7) 김동욱 소장본, 55-1, 연대미상, 54장.
- 8) 국립 중앙도서관, 승계문고, 고 3636-32, 연대미상, 60장. 목록, 권4, p.

1677.

9) University of California Library, Asami Collection, 38-6, 연대미상, 2권.
Chaoyi FANG, *The Asami Library, A descriptive catalogue*, Berkeley, 1969,
424 p., pp. 275-276

10) 위와 같음, 청구번호가 不明함.

11) 藏書閣, 4-6880, 65장. <장서각 한국판 목록>, 1972, 1348 p., p. 1219.

12) 경북대학교 도서관, 811-31/사59, 연대미상, 63장.

13) Harvard-Yenching Library, K.5568.5/8153, 연대미상, 2권. *A Classified Catalogue of Korean Books in the Harvard-Yenching Library*, Cambridge Mass., vol. 1, 1962, p. 105

14)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晚松 문고, C14-A238, 丁亥년, 59장. <만송 김완섭 문고목록>, 1979, 481 p., p. 257.

乙類

1) Bibliothèque de l'École des langues orientales, Paris, COR.I.64, 1754년, 2권. Maurice COURANT, *Bibliographie coréenne*, Paris, 1894-1901, 4 vol., vol. 1, pp. 390-391, n° 772.

2) 정규복 소장본, 1862년, 36장.

3) 국립중앙도서관, 한-48-143-2, 壬子년, 목록, 권 1, p. 510.

- 4) 위와 같음, 한-48-143, 63장.
- 5) 奎章閣, 6206, 연대미상, 109장. <규장각 한국본 총목록>, 1965, p. 563.
- 6) <原文知譯對照 謝氏南征記 九雲夢>, 靑柳綱太郎譯, 朝鮮研究所, 1914, pp. 1-187. 원문은 戊子년.
- 7)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C14-A18, 1830년, 65장.
- 8)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East Asiatic Library, Asami Collection, 2 vol., 청구번호 불명. *The Asami Library etc*, 위와 같은.
- 9)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C14-A23, 1853년.
- 10) 국립 중앙도서관, 우촌 문고, 고 3636-27, 甲申년. 목록, 권 3, p. 1110.
- 11)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811-36/김만중/사, 연대미상, 2 권 합본 목록 p. 151.
- 12) 정규복 소장본, 번호가 없음, 47 장.
- 13) 김동욱 소장본, 55-2, 연대미상, 86 장.
- 14) 위와 같은, 52번, 乙卯년 (1915), 48 장.
- 15) 국립 중앙 도서관, 고 3636-30, 연대미상, 92장. 목록, 권 4, p. 1677.

16)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East Asiatic Library, Asami Collection, 38:4, 1829년, 50 장. *The Asami Library etc*, 위와 같음.

17) 懸吐 사씨남정기, 京城 書籍業 組合, 1927, 107 p..

18) 日本, 大阪, 中之島府 圖書館 戊子년, 2권. 주의 : 위의 6번은 역시 무자년이나, 이것과 다르다.

19) 日本, 天理 大學 圖書館, 9291外73, 37장.

20) Harvard-Yenching Library, K5973.5/44825, 연대미상. *A Classified Catalogue of Korean etc.*, vol. 1, p. 139.

21) 영남대학교 도서관, 연대미상, 101장.

丙類

1)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고서 811-36/김만중/사-필-가, 부표제 : 白瀕洲 重逢錄, 연대미상, 59 장. 목록, p. 150.

이상으로 김태준이 <북헌집>에서 <남정기>에 대한 자료를 발견한 이래¹⁸ 다 김춘택에게 돌려 온 한문본들 대부분은 타자의 역서로 밝혀졌다. 을류본들은 역자 자신의 말대로 <史家文體>로 쓰인 갑류에 비해 좀 길고 화려하다. 연대가 알려진 것 가운데 복사 연도가 1754년으로

¹⁸ 金台俊, 증보 조선 소설사, 서울, 1939, 271 p., p. 111.

밝혀진 파리 소장본(위의 1번)이 가장 오래된 것이다. 병류의 연대미상 유일한 표본은 국문 직계본 가운데 두드러진 장서각본과 가까운 사실이 주목된다. 그리고 이 셋째 번역은 분명히 갑을 양류의 한역을 전혀 알지 못 하는 사람에 의해 이루어진 것도 원문 비평상으로 볼 때 유용 가치가 높은 것이다. 을병 두 부류가 무명자의 소행임은 물론이다. 김춘택의 범례가 없었더라면 이런 성과를 이렇게 쉽게 거둘 수 없었을 것이다. 먼저 사본들간에 격차가 있는 사실을 깨달아야 했을 것이고 계속 연구를 한 끝에 그것이 전승 과정에서 자연히 생긴 分岐가 아니라 역자 복수성의 까닭이라는 결론을 내기 전에는 힘들고 오래 걸리는 정밀한 문헌학적 분석이 요구되었을 것이다. 김춘택은 지름길을 가리켜 주었다.

김춘택의 범례 내용을 돌이켜 보아 특별히 참고가 된 말이 무엇이나 하면 먼저 무엇보다도 제 삼항에서 한 말이라 하겠다. 거기서 역사가의 문체로 쓰려고 하는 뜻으로 <小說口氣>에 가까운 (嫌)¹⁹ 원문의 표현을 빠뜨렸다고 하면서 두 마디의 시적 어구를 예로서 명시하는 것이 있다. 이 두 어구의 기재 유무는 범례를 모르는 비평가에게는 중간의 필사자가 첨가한 것이 아니면 다른 사람이 본래 말을 누락한 것인지를 판가름하기 대단히 어려워서 난제로 남았을 것이다. 김춘택 덕분에 이 기재 사실이 오히려 기준이 되어 직계 국본문을 또 다른 부류의 한문본들을 식별하는 데에 사용이 되었다. 그러나 일반적인 방법론의 견지에서 볼 때는 <남정기>의 원문 비평에 크게 도움이 된 이 말은 그 발견이 요행수이었고 다른 작품에 대해서는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성격의 정보이다.

범례의 제 사항에 나오는 말도 마찬가지이다. 거기서 김춘택은

¹⁹ 여기서 <嫌>을 가깝다는 것으로 해석함에 대해 大漢和辭典, 13권, 東京, 1969, 3-747에 참고.

사씨가 백빈주에 대한 시부모의 지시를 잊었다는 고백을 고쳤다 하고 구할 사람의 정체를 알리는 묘희의 꿈에 대한 일화를 보충했다고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이 저자의 일가가 된 친근한 사람이 번역을 하고 나서 원문에 무엇이 있었고, 번역 과정에서 무엇을 고치거나 빼거나 덧붙이거나 했다는 내용의 정보를 전한 일은 기적과 같아서 비평사에 아주 드물 것이다. 이 경우에는 도움이 많이 되었지만 일반 방법론에는 보탬이 될 리가 없다.

제 五항은 본문에 삽입된 시문에 대한 항목이다. 역자는 원문에 있던 것을 지적하고 자기가 따로 창작해다 첨가한 글들을 나열한다. 전자는 觀音讚과 黜謝氏 告廟文뿐이며 후자는 서간, 시, 고묘문, 제문등을 내포한다. 이들은 고대 소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실정이다. 상기한 바대로 국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시문은 “누가 지었다, 보냈다, 올렸다, 읽었다”는 것과 그 사연의 요점만을 언급하고 마는 것이 일쑤이다. 반면 그런 구애를 받지 않는 한역자는 실력을 발휘하고 싶은대로 그 공백을 메운다. 한시도 마찬가지로 한자음만을 표기하든지 국어로 번역하든지간에 국문에 삽입함이 복잡하기 때문에 국문본에는 한문본에 비해 역시 적은 법이다. 반면에 병류의 한문본에 김춘택이 참가했다는 시문이든지 을류의 역자가 보탠 것이든지 하나도 없는 것은 흥미로운 이례이다.

김춘택의 진술에 의해 원문에 있었다는 삽입 시문도 주의할 만하다. 한역의 복수성이 입증됨에 따라 그들의 상호 차이점은 국어를 한역함에 대한 연구의 튼튼한 기반이 되는 글들이다. 표음으로 쓰인 국어를 표의적 글자로 쓰이는 한문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현상들을 살필 수 있게 되어 방법론적으로 좋은 참고가 된다. 전개 줄서에서 원문에 있었다는 관음찬의 세가지 번역을 대비한 바가 있다. 변이는 두가지가 생기는 결과가 나왔다. 원어에 토박이 낱말이 있던 것으로 추측되는 곳에는 판이한 同意異字들이 나오는 한편, 국문에 한자어가 있던 데에는 同音異字들이 나타난다. 서술 부분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이 많이 보인다. 특히 중국 인명 지명들은 한역 세 부류간에 많이 다르다. 그러면서도 셋이 다 그 한자들의 한국식 음을 그대로 간직함에 일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문본들의 이런 異同은 역문간에서 흔히 보이는 전형적인 현상이다. 동일성은 단일한 원문에 의한 것이며 다양성은 역자들의 복수성으로 인한 것이다.

<구운몽>의 이본들 사정은 좀 다르다. 국문본과 한문본이 전해 공존함은 <남정기>의 그것과 같으나 원어를 가르키는 자료가 없는 것은 차이점이다. 원문 비평을 시도하기 전에 창작의 언어를 구명하는 일이 선무이다. 이에 대해 학계에 한문창작설도 있고 국문창작설도 있어왔다. 이래오다가 1988년에 <구운몽>의 한문본은 또 한편이 출현했는데 이는 현존하는 모든 것과 색다른 이본이었으며 <노존 B본>이라는 약칭으로 학계에 소개되었다.²⁰ 필자는 소개 논문을 읽을 때 거기서 발췌된 문구에서 <남정기> 한문본들에서 주목했던 같은 성질의 현상들을 발견했다. 그 새 한문본의 전편 복사를 얻어 살펴본 결과 1992년 국내 학보에 논문을 기고한 바가 있다.²¹ 정규복교수가 여러 한문본들의 원문으로 주장하는 소위 <노존A>를 <노존B>와 대비해 둘다 국문에서부터 각각 따로 새겨진 역문이라는 결론이었다. 이어서 같은 학보의 다음 호에서 학문창작설을 제창해온 정교수의 반박을 받게 되었다.²² “방법이 엉뚱하다니, 기반부터

²⁰ 정규복, 九雲夢老尊本の 二分化, 동방학지, 제 59호, 1988-9, pp. 131-170.

²¹ 줄고, 九雲夢著作言語辯證, 한국학보, 제 68집, 1992, 가을, pp.31-61.

²² 정규복, 다니엘 부세의 <九雲夢 著作言語 辯證> 批判, 한국학보, 제 69집.

빛나갔다니, 외국인의 한계가 보인다니” 하는 놀라운 공박이었다. 본고에서 방법론에 중점을 두면서 간단한 답변을 해보고자 한다.²³

정교수는 먼저 노존 AB본의 서두와 말미에서 문구를 돌씩 발췌해 인용한다. 거기에 두 글의 말은 극소수의 異字를 제외하면 동일하다. 이에 입각해 필자가 지적한 사실들은 부분적이라고 한다. 이 말은 필자 논문의 부족함을 잘 본 것이다. 즉 필자는 1992년 논문에서 서술 부분의 상호 차이를 예증하기 위해 정교수가 소개 논문에서 실었던 양본의 문구 하나만을 골라 인용하고 말했다. 차이가 현저한 같은 내용의 글들이었다. 그러나 이렇게 상이한 글은 작품 전반에 걸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범위의 정확한 한계를 논문에서 명시하지 않았던 것은 필자의 잘못이다. 불비한 설명을 본고에서 보완하기로 하자. 먼저 서술 본문에 있어서 이런 차이는 시초는 서두의 바로 끝에 있다고 밝혀둔다. 정확하게 말해서 사자가 양치사 집에서 나와 손을 흔들며 성진을 불러서 <此大唐國淮南島 등등> 하는 말부터 서술문의 표현들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다.²⁴ 그 앞에 <使者出來揮手招之日>의 마지막 글자까지는 정교수가 지적하듯이 극소수의 異字를 빼놓고는 양측에서 똑 같은 글이다. 이러다가 <此大唐國> 이라는 사자의 이 말부터는 필자의 주장대로 독자적인 번역들이다. 그리고 필자는 여기서 차이가 현저한 글의 종말도 명기하겠다. 주인공이 꿈을 깨는 장면에서, 즉 호승이 난간을 쳐서 구름이 고대를 덮고 주변이 어두어졌다는 말에 있는 것이다. 그 다음 주인공이 큰 소리를 질렀다고 <良久乃大聲疾呼曰> 하는 어구부터는 역시 정교수가

1992, 겨울, pp. 208-218.

²³ 줄고 “La langue d’origine du roman coréen *Rêve de neuf nuages*”, *Bulletin de l’Ecole Française d’Extrême-Orient* n° 82 (1995), pp. 111-141. 필자는 거기서 정교수에게 답변하기 시작한 바가 있다. 그리고 1992 줄고의 pp. 38-39에서 필자는 배경에 국문의 존재를 전제하는 異字를 발견했다는 단락이 있다. 이는 복사에서 본 <意>자 밑에 있는 줄을 종이의 하자로 여겨 그 자를 <音>으로 오독했던 것이다. 해당 단락을 취소하는 바이다. 정규복, 1992 전계 논문, p. 212.

²⁴ 정규복, 九雲夢元典의 研究, 일지사, 서울, 1977년, 616 p., p. 173.

가르키듯이 양쪽 글이 대동소이이다.²⁵ 보다시피 필자가 밝혀 둔 사실은 부분적이라고는 말하기 어렵다. <구운몽 원전 연구>에 실려 있는 노존 A본의 재구판의 면수로 따지면 상이한 번역으로 보이는 부분은 115면 가운데 106면을 넘는다. 무려 전편의 92% 이다.

이 상이한 부분의 두 문구를 예로 들어보자. 첫째는 1992년의 줄고에 이미 실은 것으로서 한림이 된 양소유가 반항한 燕王을 귀순시키는 이야기다.²⁶

²⁵ 상동, p.280.

²⁶ 정규복, 九雲夢原典의 研究, p. 209 (= A본), 노존 B본, p. 51.

N°	AB 본들의 본문	비고
1.	A. 翰林至燕國. B. 翰林至燕.	- A는 글자 하나를 첨가함.
2.	A. 絕徼之人口未會睹皇華威儀 B. 遠地之人未嘗見如此風采	- 絕遼之人 / 遠地之人 : 異文同意, - 未會睹 / 未嘗見 : 異文同意, - 皇華威儀 / 如此風采 : 다름.
3.	A. 見翰林如地上詳麟雲 間瑞鳳.	A형본의 첨가
4.	A. 到底擁車塞路 B. 過去之處挾車塞道	- 異文동의. - 路 / 道 = 길
5.	A. 無不以一睹爲快.	A형본의 첨가
6.	A. 而翰林威如疾雷, 恩如時雨. B. 威風大振矣	異文동의.
7.	A. 邊民亦皆欣欣鼓舞. 책책相稱曰聖 天子將活我矣.	A형본의 첨가.
8.	A. 翰林與燕王相見. B. 與燕王相見.	B형본에서 주어를 생략.
9.	A. 翰林盛稱天子威德, B. 盛言大唐威德,	- B형본에서 주어를 생략. - 威德 : 한자어의 동일성.
10.	A. 朝廷處分以向背之勢 順逆之機 縱橫闡闔. B. 朝開諭利害.	異文. 뜻은 비슷하지만 駢儷文으로 쓰인 A형본에는 첨가된 말이 많음.
11.	A. 言開有理. 滔滔如海波之瀉, 凜凜如霜飈. B. 言辭滔滔如翻波濤.	- 言 / 言辭 : 異字동의 (=말씀). - 皆有理 : A형본의 첨가. - 滔滔 : 한자어의 동일성.

		- 如등등 : 異文동의.
12.	A. 燕王瞿然而警당然而五悟. 乃以膝蔽地. 而謝曰 B. 燕王氣屈心服	異文동의
13.	A. 弊蕃僻陋自外聖化習 故常迷 不知返此承教大覺前非, 自此當昏狂鄙, 恪修臣職惟皇使歸秦朝廷 使小邦因危 ^혹 安 轉禍爲福 則是小鎮之幸也 B. 即修表文去王號 而請歸順矣	- 뜻이 비슷한 異文이지만 첨가된 말이 많은 A형본에는 王號를 포기한다는 말이 없음.
14.	A. 仍設宴於壁鏤宮以餞. B. 燕王設宴餞.	- 異文동의. - A형본에는 궁의 이름을 추가, B형본에는 주어를 추가했음.
15.	A. 翰林將 行以黃金千斤明馬十 匹之, 翰林却不受. B. 行 ^신 黃金千兩明馬十, 却不 受.	- 異文동의. - 千斤 / 千兩 : 異文. - 千匹 / 十疋 : 異字 동의 동음.
16.	A. 離燕土而歸. B. 離燕西歸.	- A : 土. - B : 西.

둘째는 노준 AB형간에 상이한 부분 끝에 나오는 문구로서
양소유와 처첩들이 모인 자리에 호승이 나타나 첫 인사를 한 다음에

교환하는 말들이다.²⁷

²⁷ 상동, A본, p. 280 / B본, pp. 130-131.

N°	AB본들의 본문	비 고
1.	<p>A: 丞相已知非俗僧. 忙起答禮曰.</p> <p>B: 承相知爲異人. 惶忙答禮曰.</p>	<p>丞相/承相 (동음). 知/知爲 (동사의 異字). 非俗/異 (동의).</p> <p>忙/惶忙 (동의)</p>
2.	<p>A: 師傅來從何處乎.</p> <p>B: 師父從何來乎.</p>	<p>師傅/師父 (동음). 어순이 다를뿐.</p>
3.	<p>A: 胡僧笑曰 : 丞相不解平生故人乎. 曾聞貴人善忘, 果是矣.</p> <p>B: 胡僧笑曰 丞相不諳平生故人, 可謂貴人善忘也.</p>	<p>비고 : 解/諳 (동의어 동사). 平生故人 (한자어). 曾聞...果是/可謂 (뜻이 비슷).</p>
4.	<p>A: 丞相熟視之, 似是舊面, 而猶不分明矣.</p> <p>B: 承相細觀則, 顔面果熟.</p>	<p>熟/細. 視/觀 (동의어 동사). 둘째 문장은 동의. 而猶不分明矣 (A본의 부가문).</p>
5.	<p>A: 忽大悟, 顧諸夫人而言曰</p> <p>B: 忽然覺悟, 顧見凌波娘子曰</p>	<p>大悟/覺悟 (동의어 동사). 顧/顧見(동의어 동사). 상대자가 다름.</p>
6.	<p>A: 少游曾伐吐藩時, 夢參於洞庭龍宮之宴.</p> <p>B: 小遊前日征伐吐藩之時, 到洞庭龍宮宴.</p>	<p>少游/小遊 (동음). 트키키트曾/前日 (동의). 伐/征伐 (동의어 동사), 夢參 ≠ 到</p>

7.	<p>A: 歸路暫上於南岳, 見老和尚跏趺於法座, 與衆弟子等 講佛經矣.</p> <p>B: 罷歸路遊於南岳, 一和尚坐於法 座, 講論經文.</p>	<p>歸路 (한자어). 罷 (B의 부가).</p> <p>上於 ≠ 遊於. 見...座/一...座 (동의 문장). 與衆弟子等(A의 부가). 講...矣/講...文 (동의).</p>
8.	<p>A: 師傅無乃夢中所見之和尙乎.</p> <p>B: 師父非其和尙耶.</p>	<p>A는 문자을 문어체로 늘였지만 뜻이 같음.</p>

이상 계속할 필요 없이 비교의 결과는 명백하다. <남정기> 한문본들간에 주목할 수 있는 현상들과 같은 일들이 나타나 있다. 인명의 異字는 동음이고, 한자어에는 異字가 드물지만, 있으면 동의동음이고, 흔히 순국어인 문장의 주요 동사는 異字가 많지만 대부분은 엄밀한 동의는 아니라도 뜻이 비슷하다. 이 모든 것은 한자어를 많이 담으면서 표음법으로 쓰이는 국어를 가지고 문법이 다른 언어이고 표의법으로 쓰이는 한어로 여러명에 의해 단독적으로 옮겨질 때마다 자연스럽게 생기는 차이점들이다. 비평가는 이런 특징들을 두가지 방향으로 이용할 수 있다. 원어가 이미 밝혀진 <남정기>의 경우에는 한역의 복수성을 나타낸 한편 원어가 아직 의문인 <구운몽>의 경우에는 검사해 본 한문 양 글이 역문이라는 증거가 되었다.

작품의 이 92%와는 반대로 서두와 말미가 노준 AB 본에서 동일한 사실은 <구운몽> 본문의 역사로 볼 때 중요하다. 밝혀지게 된 것은 이 논쟁의 좋은 결과라 하겠다. 텍스트를 분석해 연구해 보아야 하겠지만,

이 공동 부분의 문체는 B 본에 보다 A 본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현재로 양소유 일대기에 국한된 노존 B 본의 유일한 표본에 또는 그 선행자에 성질이 아직 불명한 조작이 행해졌다는 말이 된다.

본문에 삽입된 문서에서도 AB본에 실려 있으면 양측간에 같은 차이점이 보인다. 이에 대하여 필자는 정교수의 반박에 불구하고 1992년 줄고에 덧붙일 것이 없다.

필자는 그 줄고에서 또한 AB 본간에 중국 고유명사에서 생긴 異字同音의 많은 사례에도 주의를 시켰다.²⁸ 이는 음표 문자로 쓰인 중국 이름들을 한자로 복원하는 과정의 전형적인 현상이며 <남정기>의 한문본들간의 고유명사 차이 즉 妙喜/妙姬/苗姬 등과 유사한 일이다. 번역의 사실을 증명하는 중요한 논거가 되어 줄고를 읽지 못한 독자를 위해 그 고유명사의 일람표를 본고에 다시 기입함이 좋을 것이다.

번호	A 형본	B 형본	同音
1	p.167- 秦	p.1- 晉	1
2	p.167- 衛 p.454- 魏 ²⁹	p.1- 衛	2
3	p.173- 秀州	p.11- 壽州	3
4	少游	小遊	4
5	p.179- 英南	p.18- 嶺南	5
6	p.184- 韶州	p.23- 蘇州	6
7	p.185- 播州	p.25- 貝州	否
8	p.186- 上國寺	p.26- 相國寺	7

²⁸ 줄고, 1992, pp.

²⁹ 正字인 魏자는 위에서 인용한 정교수의 책에 복사로 실려 있는 Harvard 소장본에서 보인다.

9	p.188- 靈符	p.28- 靈府	8
10	p.212- 播州	p.54- 貝州	否
11	p.213- 王子晉	p.55- 王子真	9
12	p.213- 真國	p.55- 秦國	10
13	p.222 積	p.65- 赤	11
14	- 雪	- 石	否

15	p.223- 楊	p.66- 涼	12
16	p.226- 五賢	p.70- 傲賢	13
17	p.229- 柳	p.73- 劉	14
18	p.231- 正	p.76- 定	15
19	- 弊	- 惠	否
20	p.241- 英陽	p.90- 榮陽	16
21	p.242- 蔡女	p.91- 謝道縉	否
22	p.245- 真州	p.94- 秦州	17
23	p.246- 戴香玉 女	p.94- 披香玉女	否
24	p.246- 仙君	p.94- 星君	否
25	p.251- 晉文公	p.101- 晉文伯	18
26	p.259- 和	p.108- 霞	否
27	- 太史堂	- 太事堂	19
28	- 尋興院	- 希秦院	否
29	- 賞花	- 山花	否
30	- 望月	- 待月	否
31	p.267- 西豆州	p.118- 西涼州	否
32	p.274- 東家	p.125- 登伽	20

33	p.275- 舜 卿	p.126- 叔 卿	否
34	- 五 卿	- 有 卿	否
35	- 傅 丹	- 全 丹	否 ³⁰
36	p.278- 秦 川	p.128- 秦 天	21
37	p.280- 丞 相	p.130- 承 相	22
38	- 師 傅	- 師 父	23

이상과 같은 異字同音에 대해 다른 데서 본 사례 몇 건을 끌어대면서 이는 우연히 생긴 무의미한 일이라고 한 정교수는 논거의 요점을 간과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된다. 그런 일이 어디서든지 우발할 수 있음을 필자가 부인하는 바는 물론 아니다. 논거의 포인트는 비례에 있다. 38개 異字들 가운데 23개가³¹ 즉 60.52% 정도가 동일한 한자음을 지키고 있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보나 통계학적으로 보나 우연의 산물일 리가 만무하다. 우연에 돌릴 수 없으면 이유를 구명해야 한다. 가지각색 명사에서 보이는 이런 공통점의 이유는 표음을 하는 국문이 집필자의 눈앞에 있었다는 공통적 사정에 있지 않으면 어디 있을까.

필자는 AB 두 글의 章 표제를 대비해 상반된 점들을 1992년 줄고에서 밝히게 되었다. 擢桂/托契, 巧/矯, 筵/宴, 壁/碧과 같은 동의의 사례가 있어 국문의 배경 존재를 연상시키는 변이들이 꽤 나타나 있다. 그런가 하면 16장의 표제들 가운데 반은 아무 異字도 없어 AB본이 서로 부합한다. 그 중 토착화된 한자어도 있고 또 국문에서 옮기는 과정에서

³⁰ 동음이 아닌 傅 /全 異字는 노준 A 형측에서 누가 全과 동음이 되는 傅자를 오독한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본래는 한문본 간에 동음이자 가 있었던 것 같다.

³¹ 위의 표에서 기입한 동음이 아닌 異字들 대부분은 그 음들이 서로 가까운 사실을 주목치 않을 수 없다. 즉 파/패, 설/석, 폐/혜, 선/성, 화/하, 상/산, 동/등, 순/숙과 같은 음절들 간에는 차이점이 자음이나 모음 하나 또는 획 하나만에 불과한 것이다. 국문의 전승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한역 이전에 여러 중개본을 거쳐왔던 초기의 국문 전승의 흔적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 여덟 사례와 傅/全 이자를 모두 계산에 넣으면 동음이자의 수는 32가 되고 비례는 38중의 84.21% 된다.

아래 본문의 내용을 참고해 한역자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는 낱말이나 숙어도 있다. 그러나 알아 맞추기에 어려운 한문표현이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이 여덟 편의 표제들이 부합하고 있는 사실은 다른 표제와 또 본문 자체에서 수없이 발견한 변이들과 양립하기 어려움을 필자도 시인해 해결 방안을 1992 줄고에서 모색해 보았다.

그러나 지금은 시간을 두고 보니 <구운몽>에 대한 이 문제도 역시 <남정기> 한문본들의 사정을 참고해 유추로 다루어야 하지 않을까 여겨진다. 갑을류에 속하는 사본들도 분장되어 있고 그 표제들에서 이동이 보인다. 장 1, 2, 8, 9, 10, 11의 표제가 일치하기는 하나, 장 3, 4, 5, 6, 7, 12의 표제는 갑을류간에 똑같지는 않다. 이는 <구운몽> 노준 AB 본 간에서와 마찬가지로 반수는 맞고 다른 반수는 안 맞는 형편이다. 그런데 장서각 국문 직계본과 병류의 한문본은 표제들은 없고 분장도 되어 있지 않다. 이런 사실은 <남정기> 국문 원작도 분장이 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문본의 이 표제를 살펴 보면 김춘택의 갑류 번역과 을류 번역은 위에서 지적한 상호 이동을 보이면서 각 부류안에서는 변이가 없다. 따라서 <남정기> 한문본들의 표제는 중개 필사자가 아닌 한역자들 자신이 지었음에는 틀림없다. 지금은 <구운몽>에 국문창작설이 옳다고 가정해 보자. 같은 저자가 가까운 시기에 저작한 국문소설인 <구운몽>도 분장되지 않았을 것이라 추정해도 좋다. 작품을 장으로 나누어 각각 표제를 지어 엮은 것을 <구운몽>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한역자들이 해놓은 것으로 보게 되면 문제는 난제로 남아 있지만 그 성격이 달라진다.

서두와 말미에서 분명히 조작 대상이 된 노준 B본은 장 표제에서도 다른 조작을 당한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그 상반된 두 가지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생겼을 것이라 상상할 수 있는 일이 많다. 국문에서의 번역뿐만 아니라, 원어를 복구한 반역이든, 다른 한문본의 영향을 받은 일이든, 또 <남정기>의 몇 사본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표제 몇 개 만을 옮겨온 일이든, 또는 이상 여러 작용이 묘하게 겹쳐진 복합 현상 등을 생각할 수 있다. B 계통의 표본은 하나밖에 없는 이상 그 중 어느 것인지 단정하기 대단히 어렵게 보인다. 그러나 정교수의 말을 빌려 말하면 이것은 부분적인 일에 불과해 본문의 92%가 독자적으로 이루어진 두 가지 번역이라는 엄연한 사실에는 의심을 던질 만한 것이 못 된다.

마지막으로 방치할 수 없는 방법론에 대한 근본적인 이의에 답변을 해보겠다. 필자의 방법이 엉뚱하다고 하면서 정교수는 원문을 먼저 찾은 다음 한문본들과 대비하는 순서만이 순리라고 한다. 정교수의 이 말이 옳다면 세계 문학의 많은 작품에 대한 전문가들의 통설을 재검토해야 되겠다. 문화권의 공동 언어와 지역 언어 간에 왕래가 있던 문학은 한국 문학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 기록 문학의 고대부터 근대까지 내려오던 상례이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일반 문학도 그렇거니와 종교 문학에서 특히 빈번하던 일이다. 현재 전하는 작품들의 언어 사정은 가지각색이다. 한가지만 또는 두 가지 또는 두 가지 이상 언어로 전한 것, 원어가 밝혀진 것, 안 밝혀진 것, 원어로 도로 새겨진 반역, 원어에서 기타 언어를 거쳐온 重譯 등 여러가지가 있다. 원어를 구명하고 원문과 역문을 감별하는 것이 문헌학(philologie)이라는 학문이 담당하고 있는 과제중의 하나이며, 그러기 위해 문헌의 사정에 따른 여러가지 연구 방법을 개발해 왔다. 가장 어려운 케이스는 원어가 불명한 것으로서 일종의 언어로밖에 전하지 않는 글들이다. 그런

경우라도 문헌학적 분석을 가해 역문이라는 사실과 그 원어를 밝히는 데에 성공한 일은 적지 않다.

정교수가 순리라고 하는 것은 문헌학적 연구에 있어서 바라기 어려운 행운의 사정을 요한다. <남정기>의 경우에는 김춘택의 진술이 큰 도움이 되어서 변증하기가 과히 어렵지 않았다. 이에 비해 <구운몽> 문제는 상술한 바대로 간단하지 않다. 더군다나 한문본들은 연대가 이른 것이 많이 발견되었고 정교수의 노고에 의해 정리되어 <老尊> <乙巳> <癸亥>의 여러 단계가 있지만 일련의 단일한 계통으로 나타나 있었다. 그 때에 한문본에 문헌학적 분석을 가했으면 번역의 흔적을 탐지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으나 시도되지 않았고, 한문창작설은 우세하게 보였다. 그러다가 독특한 노존 B본의 출현이 대비분석을 가능케 함으로써 원어 문제에 새 빛을 던지게 되었다.

정교수가 원어를 구명함에 있어 첫 걸음으로 보는 국문과의 대비는 시일을 좀 더 요구할 것이다. 이에 대해 1992년의 줄고 끝에 말한 것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노존 AB 두 한문 텍스트가 역문이라는 사실이 본 연구 결과로 입증되었다고 할 수는 있다 해도 <구운몽>이 국문으로 지어졌다고 단정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본다. 왜냐하면 한역의 대본이 된 국문에 대해 아는 바가 없어 그 자체도 역문이었다는 미약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작품이 김만중에 의해 창작된 때부터 두 차례로 타자들에 의해 한역된 시기까지 시간이 흘러 왔던 것 같아서 그 사이에 이루어진 일은 알 길이 없는 것이다. 한편 아직 확실성이 없는 국문 창작설은 본 연구의 결과로 한층 더 개연성이 있게 보이게 되었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 전하는 국문본은 다 한문에서부터의 역문들이라는 정교수의 주장은 앞으로 반드시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그 가운데 원문의 직계본을 모색해보는 일이 판가름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어려워 보이지만 원어 문제를 해결하고 원문을 복원하기에는 필수 작업이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 필자는 또한 <남정기>의 유추로 생각해서 <구운몽>의 원작도 분장이 안 되었고 장 표제가 없었던 것으로 가정해보는 것이 어떨까 한다. 그리고 노존 B분에 안 보이는 삽입 시문을 원문에도 없어서 노존 A계의 한역자가 첨가한 것으로 가정해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 아닐까 싶다. 원작에 대한 이런 추정은 가능성이 클 뿐이고 확실성은 없지만 수학에서 흔히 하듯이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가정해 놓고 그 귀결을 살펴보는 방법일 것이다. 국문본 가운데 그런 것들이 결핍된 이본을 모아 검사하는 일부터 시작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아무튼 이제는 이 이상 못 하겠다는 필자는 언젠가는 누가 어떻게든지 <구운몽>의 창작설을 확인하고 그 원문을 부활 시키기에 성공하기를 바라 마지 않는다. 그래서야 김만중 글의 진정한 맛을 볼 수 있을 것이다.